



5면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음 1월 7일) 제34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정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126명

유학생 모집·배정 결과  
2022년 27명·작년 84명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 늘어  
11개 시군 24개 학교 운영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생 모집이 유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 모집 및 배정 결과 최종 126명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27명, 2023년 84명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4개 시군 6개 학교에서, 2023년 8개 시군 18개 학교, 올해는 11개 시군 24개 학교로 크게 늘었다.

이날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11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유학 운영학교 주변 116개소 거주시설 방문 및 면담을 거쳐 79명을 신규 농촌유학생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예비유학생 제도를 통해 이미 전북 농촌유학생

터로 전학 온 학생 2명이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유학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예비유학생 제도란 모집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 온 학생을 예비유학생으로 지정했다가 다음 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서울 79명, 경기 32명, 인천 3명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2명, 대전 2명, 광주 7명, 경남 1명 등 전국에서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가족 체류형 101명, 유학센터형 25명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촌유학 모집 시기를 연 2회로 확대해 2학기에 한 차례 더 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학교당 1,000만원 지원하던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올해부터는 1,200만원으로 증액, 유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유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거주시설을 확보하고, 학교별 특색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전북농촌유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바닥에 벗어 놓은 의사가 가운



전북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주중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력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한 단계 도약 계기 마련

전북자치도, 올 지방시대·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했으며, 특별자치 실현과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다.

시행계획은 2023~2027년까지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3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의 참석하에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 의견청취 행사를 개최해 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2024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 도 중점사업, 대통령 지역공약(전북) 등이

포함됐고, 특별자치도 특례발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총 200여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생명산업벨트, 전환산업벨트, 동서협력벨트의 구상을 강화하기 위한 10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동서협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는 국비 1,467억원을 투입해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정책기획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부처와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전북의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특별한 전북 매력 높여 관광객 유치

전북자치도, 시군·관광재단 등과 정책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외 여행 수요 선점으로 올해 전북 관광객 1억명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 관광재단 등과 협업에 나서고, 관광단체·기업들과 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 <관련사진 3면>

전북자치도는 1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20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먼저 오송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은 2024년도 한국관광공사의 5대 중점 추진방향인 '삼방한시장별 맞춤형 타겟마케팅' △융복합 관광콘텐츠 확대 △기관·업체와의 유기적 협업 강

화 △지역 중심의 여행 혜택·콘텐츠 확산 △해의 거점 활용 관광수출 확대에 대한 설명과 공모사업 안내, 협조사항 등을 통해 전북관광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임장미 마이펫씨앤제이 대표의 '여행, 미래의 추억에 현재의 가치를 지불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으며, 전북 관광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자치도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케이션 확대, 여행가는 달 참여,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과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준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북자치도, 중앙공모사업 적극 대응

올해 190건 발굴 150건 이상 선정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중앙공모사업 최대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 나서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국가보조사업 방식에 맞춰 190건 발굴, 150건 이상 선정을 2024년 목표로 수립했다.

당분간,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사업의 지방비 비율은 증가해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작년 12월부터 공모사업을 발굴한 결과, 102개 사업,

총 국비 8,878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했으며, 도·시군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 대형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신청할 계획이다.

민선5기 정책기획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산업 등의 발전을 통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이룩되려면 의미있는 신규사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을 전북자치도로 가져오기 위해 중앙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